

# 러시아 인쇄 산업 현황 분석 연구

김병현, 신광철\*

중부대학교 기술공학부, \*중부대학교 산업대학원 인쇄공학과  
(2002년 1월 26일 접수, 2002년 2월 16일 최종본 접수)

## Analysis on Current Printing Industry in Russia

*Boung-Hun Kim, Kwang-Chul Shin\**

Division of Technology Engineering, Joongb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raphic Arts Industry, Joongbu University  
(Received 26 January 2002, in final form 16 February 2002)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tudy of printing presses and material industry for foreign countries market development(The point of Russia market) by examine the status of printing industry in domestic and russia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the development and insurance of technical in printing industry market seemed to have secure a technical area in 21th century owing to have a exercise influence over about itself and material industry area.

### 1. 서 론

러시아 인쇄 산업의 경우 구 소련 당시 인쇄 산업은 크게 3부분(출판·기획부, 인쇄소, 판매 및 보급부)으로 나뉘어 철저한 국가 관리하에 운영이 되었으나 1991년 개방이후 러시아는 사회, 경제, 문화, 국민 정서 등 모든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거기에 인쇄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인쇄 산업은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임이 드러났다. 이 때를 맞추어 유럽과 서방의 여러 나라는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나섰다, 현재 많은 인쇄시장의 부분을 잠식하였다.

우리나라는 러시아내 많은 잠재적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러시아 인쇄시장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쇄산업의 현황분석 및 러시아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쇄기술잡지 4종류와 포장잡지 3종류, 그리고 기타 관련 잡지 및 신문, 모스크바 대학내의 세미나 자료를 바탕으로 러시아 인쇄 산업의 성장과 그 주요 원인, 인쇄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 인쇄 산업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었고, 좀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래프와 수치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러시아 인쇄 산업의 현황을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우리의 현재 기술 수준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쇄기계 및 인쇄 재료 분야의 개발을 토대로 러시아 시장개척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 2. 조사분석 방법

본 조사분석은 2001년 11월 7일부터 2001년 11월 20일까지 러시아내 국립 모스크바 화상출판대학교의 대학원 재학생 및 인쇄업체( $\alpha$ -디자인외 10개사) 종사자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기관에서 10명씩을 상대로 인쇄기의 제품 인식도, 인쇄기의 국가별 기술력, 오프셋 인쇄판(PS판)의 국가별 제품 인식도, 오프셋 인쇄 잉크의 국가별 제품 인식도, 오프셋 인쇄 잉크의 국가별 제품에 관한 5개항의 연구 주제를 러시아 인쇄 산업의 어제와 오늘, 러시아 포장 인쇄 산업의 현황, 러시아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자재의 수입현황, 러시아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쇄방식, 인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러시아내의 노력에 관련지어 각 기관별로 그룹 면접의 형식으로 실시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러시아 인쇄 산업은 구 소련의 근대화이후 계속해서 평균 10%이상의 성장을 해왔다. 1998년 당시에도 다른 산업은 성장속도가 잠시 둔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 각 산업별 1999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성장한 %를 비교해 보았을 때, 러시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하게 배가되면서 보건 산업분야가 전년에 비하여 114.8%로 1위를 차지하였고, 바로 뒤이어 인쇄 산업이 113.1%로 2위를 차지하였다. 기타 석유·화학산업이 3위, 기계제작 산업이 4위, 식품 제조산업이 102.4%로 5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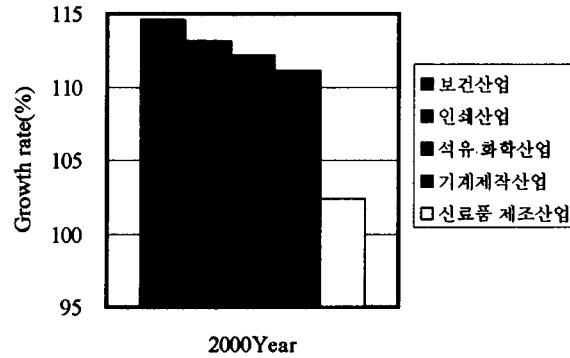


Fig. 1. The status of growth in industrial organization for 2000 year.

이처럼 러시아 내에서 인쇄 산업은 다른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급성장을 하고 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을 기점으로 인쇄물량에 커다란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서적과 신문의 발행 부수는 줄어든 대신에 1990년대 초에 4%에도 머물지 못했던, 상표 및 포장 인쇄물의 비중은 늘어 상황은 반대가 되었다. 이중 많은 인쇄물이 199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수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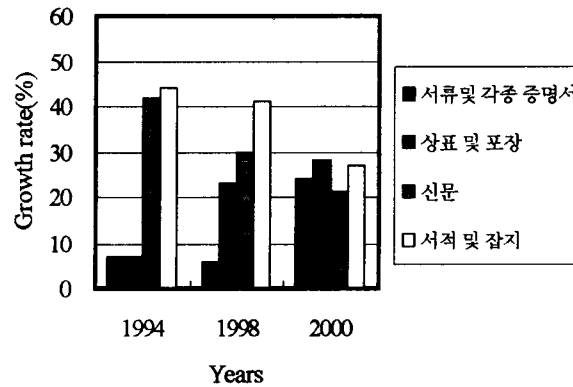


Fig. 2. The status of printing in printing list for growth in industrial organization for seven year('94~'00).

잡지의 경우만 해도 1998년 러시아 외부에서 인쇄된 양이 140억불이 넘으며 이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이 지불됐다는 레신 언론부 장관의 말에서도 알 수 있고, 리에프 차관은 1998년 1억 3,200만 달러 규모의 서적과 팜플렛, 2억 4,400만 달러 규모의 신문, 잡지 및

기타 정기 간행물, 5,600만 달러 규모의 상표, 레테르가 국경을 통과했다고 자신의 논고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인쇄물의 경우 대략 이 숫자는 4억 3,2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말이다. 레신 장관이 잡지물만을 대상으로 인용한 숫자에 비하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숫자도 매우 인상적이다. 같은 칼럼에 인용된 독일 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인쇄물 총 가격의 약 70%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평가에 근거한다면 러시아 인쇄업의 현황은 핀란드, 독일, 폴란드 등의 유럽국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다시 말해 만약 4억 3,200만 달러가 70%라면 1998년 전체 인쇄 서비스 매출액은 6억 1,700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전체 국내 인쇄기업 서비스(국영 및 민간)의 몫은 30%, 즉 1억 8,500만 달러라는 것이다. 한편 국가언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8년 9개월 동안 인쇄기업들은 2억 2,130만 루블의 이윤을 거두었다. 소득의 약 10%가 이윤으로 남으므로 결과적으로 국영 부분의 소득은 약 22억 1,300만 루블(98당시 1\$=83.8루블)이 된다. 이것을 1998년 8월의 루블 평가절하를 고려해 외화로 환산해보면 동기간 국영 서비스부분의 소득은 3억 3,600만 달러로 위에서 인용된 러시아내 인쇄업 전체 서비스 금액 평가를 1.8배 초과하는 셈이다. 국내의 평가와 국외의 평가가 상당수 다르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금액적으로 큰 성장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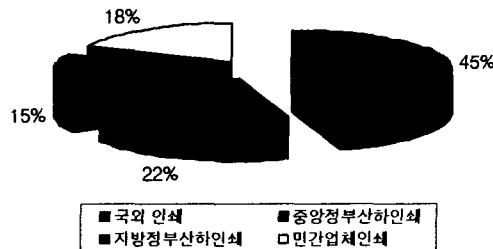


Fig. 3. The status of form in Russia printed production for 1998 year.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모라토리엄 선포이후 해외에서 인쇄해서 반입되어 오던 인쇄물들이 자금의 부족과 경제원칙에 의해서 러시아내에서 인쇄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98년 당시 40%가 넘던 해외수주는 2000년에는 절반 수준인 26%가 되었다. 그렇게 러시아내로 도입된 수주량은 2배 가까이 민간 수주량을 늘리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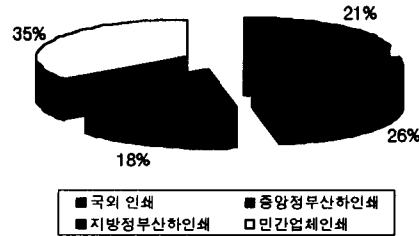


Fig. 4. The status of form in russia printed production for 2000 year.

현재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경제 개혁은 러시아 국민의 정보접근, 인쇄매체 시장, 출판업계 구조 및 인쇄 산업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전국에는 1980년대 말과 비교해 약 100배 이상의 편집출판 기관들이 있다. 수많은 비국영, 주식회사, 사설 인쇄 기관들과 광고 인쇄국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새로운 시장조건에 적응해 편집 인쇄 과정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면 과거 인쇄매체 분야에서 주류를 이뤘던 이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2000년 러시아내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수는 1만 종류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총 규모에 있어서 중앙 일간지와 지방 일간지의 발행 부수 비율에 급격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 1990년의 경우 중앙 일간지의 연 발행 부수가 총 규모의 71%이었다면 1999년에는 30%에도 못 미쳤으며 총 정기 구독 발행 부수 2,460만부 중 지방지가 1,760만부, 다시 말해 70%를 차지했다.

인쇄물 배급 연맹(СРПП) 전문평가에 따르면 발행 부수가 5만 부를 넘는 정기 간행물 비율은 4.2%, 1만~5만 부는 17%, 1천~1만 부는 44%, 1천부 이하는 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매체 분야의 변화가 러시아 인쇄 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했음은 당연한 일이며 거기에다가 이것은 전통적인 인쇄중심지역(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다르, 노보시비르스크)외에 러시아의 광대한 지방까지 강한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정기 간행물 발행 중심지의 탈 중앙화, 평균 발행 부수 격감, 발행지 종류의 증가 및 표지 정장 방법의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경향들은 거대한 규모의 새로운 생산양식, 즉 대부분의 경우 인쇄의 질, 발행목록, 제작기간에 따른 인쇄 서비스와 러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민간 소규모 인쇄소들의 대거 양산을 가능케 했다.

러시아 연방 언론·TV·라디오·대중통신매체부(약칭 언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9개월 동안 언론부는 2천건 이상의 인쇄사업 면허를 발급했으며 그중 34%는 국영부분 기업들, 66%는 기타 소유형태의 기업들에게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언론부 지방 산하 기관들은 1999년 1월 1일 당시까지 약 2,600개의 면허를 발급했으며 그중 59.3%가

비 국영 부문이었다. 실제로 새롭게 설립된 인쇄소중 압도적으로 다수가 컨버팅과 광고 부문에 종사하는 영세한 민간 기업들이다.

최근 5년간 러시아의 인쇄물 발행 동향을 보면 매우 인상적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전체 생산 구조 내의 용지 지출면에서 신문이 61%로 선두를 차지해왔으며 서적이 18%, 잡지가 17.5%를 기록하여 왔다. 나머지 기타 광고, 비즈니스, 홍보용 인쇄물 및 상표, 포장 등은 겨우 몇 %만 차지했을 뿐이다. 1999년 자료에 따르면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띤다. 신문이 38%, 서적이 15%, 잡지가 7%, 기타가 40% 이상이었다. 최근 몇 해 동안 러시아내 인쇄 서비스 시장에서 인쇄물 기본 분야의 상황과 역할은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2000년 전반기에 언론부 직속 산하 인쇄소들은 전체 서적 발행량의 66.4%, 잡지의 61.1%, 신문의 38.2%를 발행했다. 이것은 가격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출판물 총 규모의 20.1%를 차지하는 것이다. 나머지 출판물 발행과 관련 지역별 정확한 통계 자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비국영 및 지방 행정부 관할 부문 거대기업들(프레사, 모스크포스카야 프라브다, 몰로다야 그바르디아, 트베르스코이 인쇄공단, 야로슬프스키 인쇄공단, 모자이스키 인쇄공단, 알마즈-프레스)의 생산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어서 가격면에서 그 생산규모가 8%를 넘지 않음을 전문가들은 말한다. 구(區)단위를 포함한 기존의 지방 인쇄소들이 이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총 10~12%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약 60%)는 기본적으로 새로 생겨난 수천 개의 민간부문 인쇄소와 거대 산업기업 산하에 속한 인쇄소들의 몫이다. 다시 말해 전체산업 및 소비영역(언론을 제외)을 담당하는 인쇄업은 현존하는 부문 생산력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에 대부분의 서적 및 잡지가 해외에서 인쇄되어서 반입되었고 민간업체의 수주 금액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2000년이 되어 상황은 앞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 인쇄되어 도입되는 인쇄물의 수요는 급감하고 정부산하 인쇄소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각종 서류 및 증명 서류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다시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는 부분은 역시 민간 인쇄소이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증가되었으며 가장 괄목 할 만한 부분은 상표와 포장재 인쇄부분이다.

인쇄 서비스 시장 동향에서 국내 인쇄업 구조 내에 그 규모와 투자 흥미도에 있어 매우 상이한 2개의 거대부문이 점점 더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전통적 의미의 인쇄 생산 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 및 지방단위 기업들로 이들은 출판공단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새롭고 완전히 독립적인 분야로 국민경제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인쇄 산업의 이 두 부문의 규모에 대해서는 위에서 인용된 인쇄기업의 총 가동률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각 부문의 투자 흥미도에 대해서는 기술 현대화 및 장비 현대화에 대한 투자 규모가 증명한다. 이미 수년에 걸쳐 출판 공단을 위해 일하는 기업들에 설치된 장비의 가격은 두 번째 분야 즉, 민간분야 기업들보다 훨씬 낮다. 여타 인쇄물을 생산

하는 두번째 부문의 기업들이 중앙 및 지방에서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망이 밝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연방 및 지방권 인쇄업이 상실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경제활동주체와 당국의 노력을 집결해야만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지방 인쇄업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대다수 지방(주, 시, 구 단위 인쇄소)의 인쇄 생산 공단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지방 인쇄업의 재정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기관의 입장정리, 우선 사업 선정, 해결 과제에 자금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때 인쇄업 문제를 매스미디어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 매스미디어의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발행 부수가 격감한 반면 정기 간행물의 범위가 확대됐다.

러시아 연방내 매스미디어의 구조적 변화 분석은 현재와 장래의 정보에 대한 수요 충족 그리고 여론 형성에 있어서 시, 주, 공화국 단위 신문들이 기본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증명한다. 신문 종류의 총수는 주제별, 광고 정보별 일간지 종류수의 증가로 성장세를 타고 있다. 정보 광고지를 포함한 지방, 지방간, 구 단위 일간지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일간지의 광고 부족과 구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독립 일간지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A3~A4 규격 4면지 신문의 발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주간지, 월간지 종류도 확대되고 있고, 인쇄의 질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내 인쇄소들의 신문생산은 흑백 일간지 생산이 전부지만 이들의 현 상황은 위기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며, 컬러사용 및 규모 확대와 같은 일간지의 발전 전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인쇄품목의 발행종류는 늘었으나, 발행량은 줄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기타 선진국에서 일어났던 현상으로 다품종 소량화에 맞는 현상이다. Fig.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을 기점으로 해외 인쇄는 줄었으며, 그 물량이 러시아내에서 소화되고 있고 그중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요인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증대시켜 인쇄 산업의 발전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인쇄 산업의 발전 속도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는 것은 역시 상표와 포장제의 인쇄이다. 구 소련시절 포장인쇄는 4%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였다. 그 이유는 경쟁이나 구매욕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으며 내용물의 표시 정도만 하면, 그 당시에는 만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장인쇄는 러시아에서는 아주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과 같이 취급되었고, 그 발전속도는 다른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하여 최고 몇 배수에 달하기도 하였으며, 평균 10%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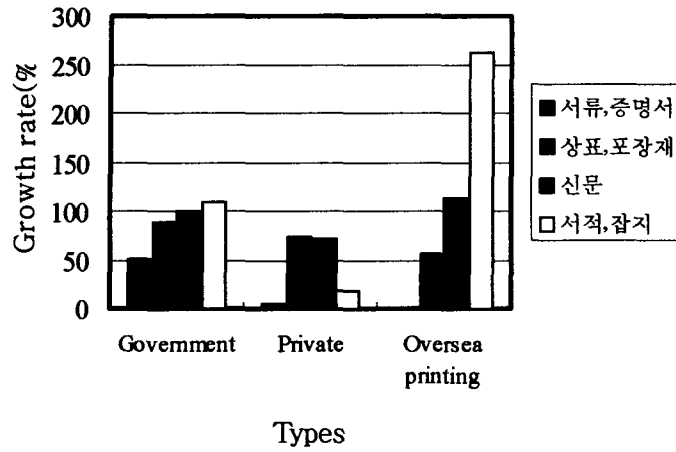


Fig. 5. The status of form in russia printed production worker for 1998 year(Unit: 1,00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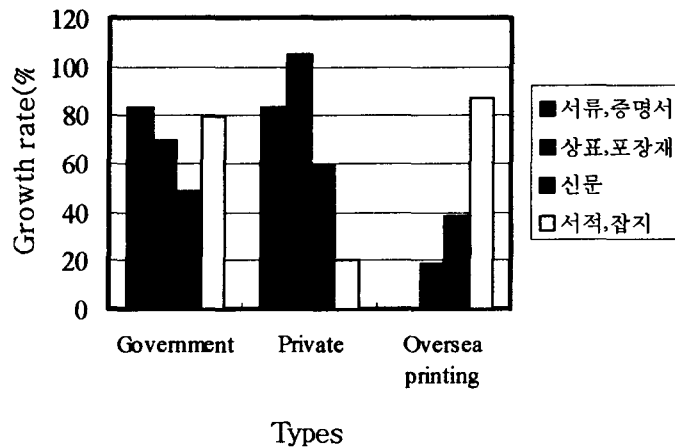


Fig. 6. The status of form in the chief object for 2000 year (Unit: 1,000,000 \$).

구 소련의 개방이후 많은 외국의 우수 인쇄관련 장비 생산업체들과 관련기자재 업체들이 빠르게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나섰으며, 이미 다른 회사들이 많은 부분을 잠식하였다. 1990년대 당시 국영산하의 대부분의 모든 인쇄장비들이 감가상각 기간인 15년을 넘겼고, 그중 50년이 지난 것도 인쇄작업에 이용되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러시아 내에는 많은 인쇄장비가 수입품이었다. 이것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군수산업이 아닌 단지 국가 정책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취급이 되어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



왔기 때문이다.

주요 수입국을 살펴보면 독일(Heidelberg, KBA, MAN Roland, Basf, Siegwerk, 기타)이 당연 앞서 포장 기자재와 같이 1위를 차지하였고, 기타 다른 나라들은 앞서 포장 기자재 수입과 비슷한 %로 수입이 되고 있다. 2000년 말경에 지난해에 비하여 아시아 주변국으로(중국, 대만 등)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러시아내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은 몇 개 되지 않으며, 그 시장 점유율도 현저하게 낮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내에서 개최된 각종 인쇄기자재 전시회에서 한국상품의 전시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규모도 상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재료를 전시한 상태이다. 그에 비해 중국과 대만은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꾸준히 참여를 하여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러시아는 인쇄생산을 위한 장비 및 재료뿐 아니라 인쇄물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룬 바가 있다. 러시아 연방 국가 세관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수입구조의 동향을 알 수 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쇄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995년부터의 무역상품목록 수입 동향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95년을 100%로 기준). 이 분석에는 달러가격을 기준으로 한 러시아 국가 세관위원회의 자료가 사용됐다. 상품목록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때로는 국가 세관위의 코드와는 상이하게 분류돼 있다. 생산재료 항목에는 인쇄용지, 마분지, 인쇄 잉크가 포함된다. 인쇄 간행물 항목은 편집출판과정을 거친 인쇄물들을 지칭한다. 인쇄물 항목 내 소항목들은 등록잡지, 상표 및 기타 인쇄물로 분류돼 있다. 인쇄장비 항목의 경우 인쇄생산을 위한, 즉 인쇄기계와 제본기계만이 포함돼 있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과 1998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부터 심화된 세계경제 불황과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1997년부터 루블이 평가 절하되고, 그에 따라 수입량은 줄어들게 되었다. 미색 신문용지의 경우 1997년에 크게 하락하여 1998년부터 다시 수입이 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내에서 미색 신문용지를 사용하는 고급 신문의 수가 적기 때문에 러시아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코팅지의 경우는 러시아 내에서 생산이 가능하지만, 그 품질은 일반 외국제보다 떨어져 인쇄적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잉크와 비코팅지는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던 양이 점점 러시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품질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모라토리엄으로 서적 및 팜플렛 2.9배, 신문, 잡지 및 기타 정기 간행물 2.8배 등 인쇄물 반입량은 평균 2.5배의 감소율을 보였다. 인쇄물 수입은 외국 출판물의 수입과는 다르다. 이것은 인쇄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이라고 잡지사 및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세관 통제는 아직 서비스 및 용역에는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WTO 가입이 임박하면서 이 문제는 필수적으로 논의 돼야 한다. 러시아 내에서도 러시아 상품 보호를 위해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다.

Table 1. The status of import in a printed productions, tools and materials on the basis 1995 year(Unit: %).

코드번호	기준제품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b>주 세 품 별</b>						
480100	신문용지	130.21	63.64	128.13	164.58	205.21
4802	비코팅지, 마분지	92.82	138.35	125.59	81.59	70.89
4810	코팅지, 마분지	96.99	145.70	109.02	156.16	188.14
3215	인쇄용 잉크	95.13	153.40	198.96	199.43	137.38
<b>출판물별</b>						
1901	서적	143.13	203.80	192.66	78.28	94.06
4902	신문, 잡지, 기타	154.99	159.41	176.41	63.63	66.43
<b>인쇄물 종류별</b>						
4820	등록된 잡지	176.88	207.03	172.56	124.93	132.55
4921	모든 종류의 상표	134.19	167.64	134.21	74.09	75.27
4911	기타	245.52	262.46	256.81	156.41	184.49
<b>기계</b>						
8440	제본장비	60.52	57.63	35.93	12.99	50.31
8443	인쇄용 장비	49.76	110.52	119.4	58.48	7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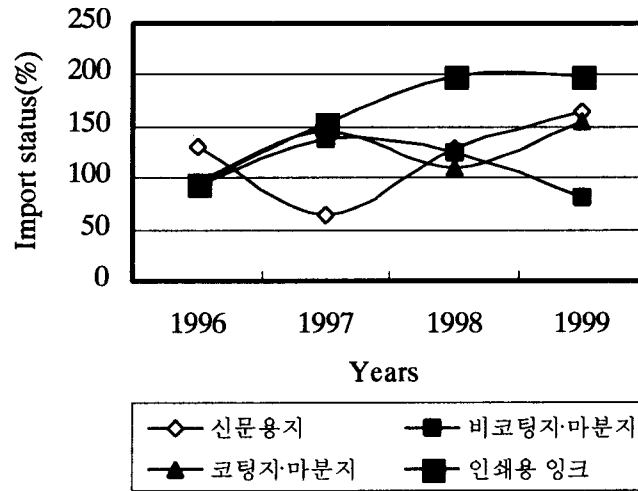


Fig. 7. The status of import nation in a list of materials for four year (1996~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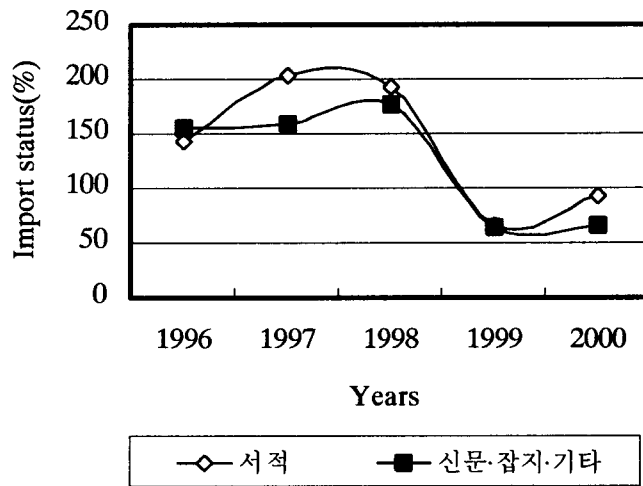


Fig. 8. The status of import in a publication for five year (1996~2000).

그러나 Fig. 9의 자료를 살펴보면 인쇄장비 부문의 경우 그러한 기대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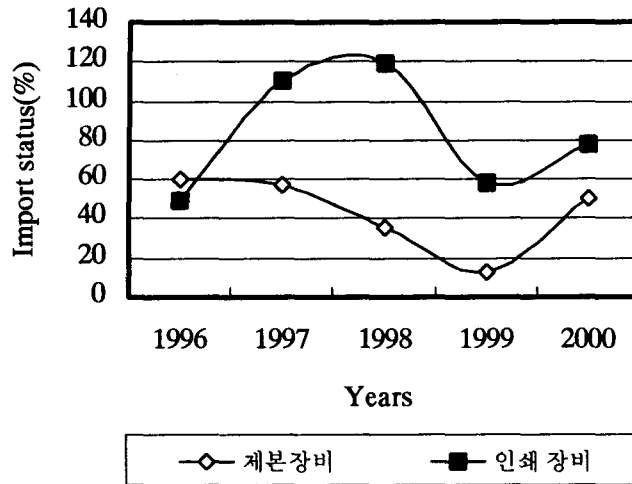


Fig. 9. The status of import in a printing industry machines for five year (1996~2000).

러시아의 인쇄기계 제작은 러시아내 4군데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중 품질이 수입기계와 비교하여서는 낙후되지만, 중간 정도이상의 품질에 인쇄를 기대할 수 있는 공장은, 이해할 수 없는 시장정책, 즉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 시장 진입에 전략을 펴고 있지 않아 보이는 토티스크市 소재 공장 한곳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외국기계 수입을 저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1999년의 급격한 수입 감소 현상은 정부의 러시아 인쇄업계에 극히 불리한 현 정책에 돌고 2003년경이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인쇄 장비 항목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제본 장비의 경우 그러한 전망을 하기는 힘들다. 이것은 러시아 서적업계 상황의 특수성 때문이다. 만약 경제적으로 재정 구조가 충분한 대형 출판사가 러시아 서적 인쇄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 이 부문은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것의 결과는 어떠한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인쇄기계 제작 분야에 대해서 인쇄관련 기술자들과 학자, 대학의 교수들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S. 치스토즈보프(ASOT NII 폴리그프마쉬사장)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오늘날 러시아의 인쇄기계 제작의 미래를 고찰해보면 희망을 가질 충분한 근거가 있고, 러시아는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분야가 최단기간 내 복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모든 혹은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 측면에서 볼 때 이를 위해서는 광대한 판매시장이 필요하며 다른 측면에서는 이 복잡한 기계 생산분야의 발전을 위

한 안정적인 기초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거대한 과학 기술 생산을 위한 잠재력, 현대적 인쇄기술 구축을 위한 다년간에 걸친 독자적 경험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에 단기간 내 현대적이며 경쟁력 있는 인쇄 기계 제작 분야를 재건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 국내외의 경험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체계적인 성격을 띠어야 함은 분명하다. 해외의 경험을 전수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그 경우 러시아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대 인쇄기술 구축 및 전문가 양성에 있어 경험을 보존, 확대하고 이들을 과학기술 과제 해결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러시아는 향후 오랜 기간동안 외국회사들의 조립 생산 기지화가 될 위험이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서 러시아가 아직 보존하고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노하우, 고급 전문가의 존재 덕분에 예를 들어 NII 폴리그래프마쉬의 경우 다른 기관 동료들의 참가 하에 현재 현대적 정보 변환 기술 및 인쇄형태 혹은 직접매체에 정보출력을 위한 현대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인쇄기술 구축을 위한 개발을 실시하고 전통적인 인쇄기술의 발전을 위한 최신 과학 기술 성과를 개발하여 고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인쇄기계 생산을 위한 전문화된 생산기반의 부재, 재정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개발결과를 신속하게 충분한 규모로 정착시키기가 불가능하다. 품질 증명, 공해문제 해결, 노동안전 보장, 기준화, 과학 기술자문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서비스 부문과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임에 틀림없으며 국가 재정지원 받을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물론 생산발전을 위한 조건구축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가장 현실적인 지지기반은 전망이 있지만 자본 투자량이 매우 큰 생산부분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 러시아와 해외 투자자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재 외국회사의 러시아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대형 러시아 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국 파트너의 재정지원과 현대의 기계제작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 회사들과 국내 다른 전문 기관들의 인력은 단기간 내에 인쇄기계 구축 및 생산부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서비스, 판매 노하우와 결합시킬 경우 장차 희망은 밝게 전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내에서 인쇄관련 기자재 및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의 수를 헤아려 보면,

- 인쇄장비 제작 공장 - 4개
- Stamping용 foil- 1개

- 인쇄 잉크-2개
- 양장 제본용 커버지-3개
- 비닐제품(film)-5개
- 종이생산-15개(일정규모 이상)
- 제판용 필름-2개
- Plastic printing용 판-2개 등

이렇게 일부 제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지만, 그 시장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인쇄기계의 경우는 앞서 설명을 하였고, 잉크의 경우도 수입 대체를 하고 있지만, 고급 인쇄에 쓰이는 잉크는 대부분 수입이 되고 있다. 2개의 회사 중 한곳은 순수한 러시아 회사가 아니라 1996년 SUN Chemical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인수하여 잉크를 생산해 내고 있고 규모적으로는 다른 순수 러시아 잉크 회사보다는 작다. 플렉소 잉크의 경우는 러시아에서 만들지 아니하고 완제품을 들여와서 판매만을 전담하고 있다. 종이를 생산하는 업체는 많으나 그중 어느 정도 규모를 띠고 있는 회사는 15개회사로 이 회사중 불가(Балауниский Бумажный Комбинат)라는 회사가 가장 많은 양의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 4. 결 론

1. 러시아의 인쇄산업은 정기 간행물 발행 중심지의 탈 중앙화 즉, 러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민간 소규모 인쇄소들의 대거 양산되고 있으며, 특히 상표와 포장재 인쇄부분이 급성장하고 있다.
2. PS판은 한국제품의 것이 인식도가 양호하고 저렴한 가격이 장점으로 현재 러시아 시장 15%를 점유하고 있으나, 시장개척이 미흡한 것이 단점으로 이를 보완한 후 일본 및 프랑스 등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산 잉크의 경우 현재까지 러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적이 없으나 제품 인식도, 가격 및 기술력이 양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시장개척 과정에서 일본 및 프랑스 등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종이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쇄장비는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참고문헌

- (1) 대한인쇄연구소, “인쇄환경변화와 대응방안” (1992).
- (2) 대한인쇄연구소, “인쇄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1993).
- (3)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 “기본실태조사보고서” (1996).
- (4) 월간인쇄문화, “인쇄기재년감” (1993~1996).
- (5) 신재성, “그라비아 인쇄와 연포장기술: (1993).
- (6) PR·IC 국제인쇄연구회편, “세계의 인쇄기술-현황과 전망”, DRUPA (1990~1995).
- (7) PR·IC 국제인쇄연구회편, “세계의 인쇄기술-현황과 전망”, DRUPA (1995~2000).
- (8) 통상산업부, “인쇄기계개발 연구기획”, 한국기계연구원 (1997).
- (9) GAMIS, “Statistical Handbook for the Graphic Arts Industry” (1996).
- (10) 한국기계연구원, “기계류·부품·소재기술 전망과 대일무역 개선방안” (1995).
- (12) ЦБК и рынок бумаги
- (13) ЦБК Экспресс
- (14) Полиграфия (1998~2001.02).
- (15) Russian Food Market
- (16) Полиграфист и издатель
- (17) Офици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 (18) Флексо Плюс
- (19) Издательский Миз России
- (20) 35ЛЕТ ПГФ'Полиграф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 (21) Мир упаковки
- (22) Упаковка звезда россии
- (23) Тара и Упаковка